

“ 독서 장애인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첫걸음은
대전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하는 일부터 ”



이 영 옥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 이영옥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 · 교육감과의 일괄질문 · 답변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이영옥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발전과 대전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대전시민 중에 본 의원과 같은 시각장애인은 약 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점자도서관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점자책은 물론 녹음도서와 전자도서 등을 제작하고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시민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장애인은 물론, 읽기에 장애를 가진 노인, 저시력인, 학습 장애인, 양손절단 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장애인 등 일명 독서 장애인까지로 본다면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서 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 공간은 동구 삼성동의 복잡한 인쇄소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점자도서관을 찾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택시기사 중에도 이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들조차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비장애인들도 이럴 정도인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도서관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전점자도서관의 운영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전시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실이 바로 이것인가?’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시각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척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알 권리, 평생학습권 등을 충족시킬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장기간 외면하고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인식이 나아져 지난 1987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에는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07년에 발효된 새 「도서관법」은 “점자도서관을 공공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 시켰으며,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은 “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되긴 했으나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전체 공공 도서관의 10%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점자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관심 밖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대전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시장께 제안합니다.

신축되는 공공도서관이나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간을 마련해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점자도서관을 마련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도서관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도서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주차장과 외부 휴게공간, 구내매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의 편의성도 좋아집니다.

공공도서관은 홍보효과도 좋아서 점자도서관 운영자는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장애인 이용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풍부한 자료를 대체자료 제작에 이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든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다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문제와 늘어나는 자료를 비치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설치된 점자도서관은 기존의 운영주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순환보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일은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점자도서관에는 점역사와 교정사, 음성도서 제작사, 보조기기 수리기사, 특수자료 관리사서,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채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 의원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점자도서관 현장 운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본 의원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만 의존해 오던 점자도서관 서비스에 공공의 힘을 보태려는 의지만 있다면 신규 투자로 인한 부담이나 시행착오 없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점자도서관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25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부산시는 2002년에 점자도서관 건립예산 6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확보했고, 구립 사상도서관 신축 당시 도서관 1층을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으로 설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본 의원은 대전점자도서관을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공실상태인 한밭도서관 별관은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환으로 대전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 · 설치하기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첫 출발을 위해 대전점자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옮기는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신뢰와 소통,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홍철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누가 좋은 일을 했는지?

누가 역사의 흐름을 반대했는지?

역사는 말해줍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현명하신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염홍철 시장

존경하는 이영옥 의원님께서서는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점자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해 달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 점자도서관 활용 관계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밭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영옥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사항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한밭도서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전점자도서관의 위치는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한밭도서관 내에는 시각장애인실이 운영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불편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밭도서관으로 점자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